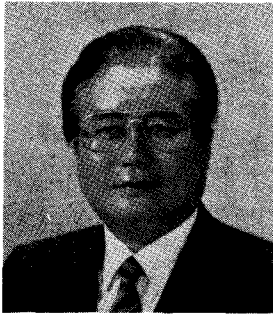


발명의 발상기법



金 寬 衡
〈본회 상근이사〉

이 글은 6월 13일로 100회를 맞은 발명교실에서 본회 金寬衡상근이사가 강의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

1. 다르게 변경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변경 사용)

•요점

물건의 구조, 모양과 기능을 바꿈

불편과 실증이 나는 물건에서 아이디어 탄생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성공

•설명

사람이 흔히 쓰고 있는 물건의 구조나 모양 또는 용도를 변경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의 발명품이 우리 생활에 사용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물건을 사용할 때 불편을 느끼거나 실증이 나서 크기와 모양을 바꾸면 어떨까, 색깔을 변경하면 좋을텐데, 소리나 향기를 바꿀 수 없을까, 움직이는 작동을 바꾸면 더욱 편리할텐데 하고 생각하다 보면 기능이 바뀌고 성능이 높아지는 기발한 방법이 떠오른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다보면 다른 용도에도 필요할 것 이라는 생각이 나서 다른데에 사용해 보았더니 더욱 쓸모가 있어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다르게 변경한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전자계산기 겸용시계, 라디오시계가 내장된 필기구, 향기나는 인조 모조과일, 소리 나는 생일엽서, 명명이 강아지완구 등이 있고, 용도를 달리한 아이디어는 주전자 주둥이를 물뿌리기로 쓴다 든가 전등을 살균램프로 바꾸고 홀라후프를 비닐하우스의 대나무쪽 대신 사용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

•맺음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을 바꾸거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생각을 해낸다.

2. 더 크게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될까(대소 변경)

•요점

크고 작게해서 편리해지는 방법을 생각
지금보다 쓸모있고 호감이 가도록함
시간 절약과 자동화를 이룸

•설명

사회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크게 만들어 더 쓸모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지금있는 물건보다 작게 만들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더욱 크게 하여 관심을 끌어들여 인기를 얻고 호감을 갖게하는 방법과 지금보다 더 큰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게하는 생각의 방법도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다.

물건을 작게해서 편리하고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난 아이디어로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

좀더 작게, 얇게, 가볍게, 짧게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연결될 때 수요자들이 꼭 호감을 갖게 된다.

더 축소한다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물건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도 흔히 쓸수 있는 단순화와 시간절약 또는 자동화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크게해서 좋은 것으로 광고를 크게해서 인기를 얻거나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배, 비행기등을 들 수 있고, 축소한 것으로는 전자계산기, 텔레비전, 리디오, 접는 우산, 인스탄트식품등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 맺음

지금보다 크고 작게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편리하고 쓸모있는 발명으로 연결한다.

3. 결합하거나 분리하면 어떻게될까

• 요점

결합해서 기능을 달리함
분리하고 분석해서 다시 짜맞춤
보다 쓸모있게 하고 효과를 높임

• 설명

발명의 기본적인 요소는 서로 다른 구조를 결합해서 종래 보다 기능과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벽에 부딪칠 때 곧 결합시켜 보면 엉뚱한 문제까지 풀려서 뛰어난 생각이 튀어나와 우수한 방법이 탄생하기도 한다.

결합은 단순히 현재 있는 것을 다른것과 결합시켜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분리하거나 분석해서 달리 짜맞추어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현재 있는것 보다 훨씬 기능이나 원리가 달라지도록 높은 수준으로 결합하거나 분리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발명은 매우 쓸모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맺음

서로 다른것을 결합하거나 분리해서 짜맞추어 효과를 높이고 쓸모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발명의 기본요소로 삼는다.

4. 질문으로 아이디어를 찾자

• 요점

질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음
적절한 질문을 미리 준비
답변에 의한 아이디어 구상

• 설명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찾아내어 관찰을 하면서 문제를 쉽게 푸는데는 동료나 이웃, 전문가, 선생, 경험자들에게 물어서 푸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왕성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특히 소년들에게는 하고 싶은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최선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질문은 가장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올것인가를 미리 구상한 다음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질문에 의해서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때도 답변을 듣고 합리적인 가까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이를 잘 응용하면 우수한 아이디어가 된다. 그러므로 질문은 아이디어를 찾는 데 매우 손쉬운 지름길이다.

• 맺음

목적 달성을 위해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질문으로 푸는 아이디어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5. 우연한 힌트를 사로잡자

• 요점

목적 달성을 위한 탐구가 근원
번쩍 떠오르는 힌트를 잡음
우연한 힌트로 큰 발명을 얻음

• 설명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생활속의 대화중에도 아이디어의 힌트가 떠오를 수 있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탐구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생각이 잡혀 발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연하게 행운을 발견 하는 재능”이라고 하며 월폴이 지은 세렌디피티의 세왕자 소설에서 나온 말로써 이 소설의 주인공들이 뜻밖의 행운을 찾아낸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실 어떤 발명가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동안 씨름하다 보면 지랄구레한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와 영감을 얻어내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의외로 뜻밖의 엉뚱한 착상이 떠올라 운 좋은 발명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의욕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우연하게 어느날 갑자기 세렌디피티의 행운이 찾아드는 것은 아니다.

•맺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우연한 힌트를 잡아 큰 발명을 이루기도 한다. <♣>



노재필 사우돕기 1일호프 성료

500여만원 수익금 전달

본회 직원모임인 特友會(회장 백인홍)는 28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사당동 소재 퇴벤호프에서 노재필 사우돕기 1일 호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본회회원, 변리사, 발명가, 직원 친지·친우 등 6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1일 호프에서는 모두 5백여만원의 수익이 있었다.

본회 총무과 주임인 노재필사우는 지난 4월

중순 지방간으로 입원, 20일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1일 20여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안타까운 실정.

※이번 1일 호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재필사우의 완쾌를 위해 지속적인 기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우회원 일동).<♣>

